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상임이사

'도로변 숲은 쓰레기 천지였다. 플라스틱 컵과 음식물 포장용 비닐, 종이, 페트병, 술병 등이 날려 있었다. 차량에서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뿐 아니라 전기장판이나 이불, 서류가방 등 생활형 쓰레기도 넘쳐났다. 계속 근처에서는 차량 타이어나 깨진 범퍼도 나왔다.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남은 잔해와 폐건축자재 등도 보였다. 쓰레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이) 50m를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8월, 모 중앙 일간지에 실린 기사, '한라산 도로 주변은 쓰레기

풍요의 시대와 빈곤의 사회

천지... '쓰레기 안 버리기 캠페인'
절실'의 일부다.

이 기사는 정보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을 위시한 온갖 문명의 혜택을 구가하는 풍요의 시대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미개사회의 '빈곤'한 사회가 과분한 물질의 '풍요'시대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나타나는 참담한 결과다. 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은 우리의 저급한 문화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 쓰레기들은 문명의 이기(利器)로 세상에 나와서 한때 사랑받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린 혜택에 대해 고이 보내는 도리조차 무시하고, 야만스러운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니 큰 걱정이다.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공조를 그냥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것도 다반사다. 병원의 실외 흡연실 바깥과 주위, 벤치나 화단에는 금연

을 호소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공조를 버린다. 이런 '미개'의 현상은 그곳만이 아니다. 시가지를 벗어난 곳의 도로변과 도랑에도 담배꽂초 외에 과자류의 포장지, 음료수 캔이나 종이팩, 술병까지 다양한 종류의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다. 또, '클린하우스'에 조차 마구잡이식 버려기가 허다반하다.

요즘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그 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시대다. 자연과 자원의 보호,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마스크와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눈에 띈다. 자잘한 생활 쓰레기에서부터 대형폐기물에 이르기까지 그 수거를 위한 체계도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삼림과 생태계 지키기, 자연 풍광 지키기, 삶의 터전과 자연유산 지키기 등의 개별적 사안을 위해 벌이는 활동도 그 체계와 규모면에서 풍요롭다. 그런데 이런 선진 개

명의 시대와 시민의식이 빈곤한 미개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게 참으로 이상하다.

이제, 올바른 시민의식의 내면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제주의 미관이 병들고 우리 삶의 환경이 오염되고 폐해되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까지 부식되며 야만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의식과 정신의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으므로, 바른 시민의식의 제고(提高)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유형의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의식의 개선과 개혁 등 무형적인 분야에 '풍요로운' 관심과 실천이 중시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제 구실을 잘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과 환경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폐해를 알고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우매한 미개'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방조 행위'다.

사설

추석절 사이버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서민들을 울리는 사이버 사기범죄가 여전합니다. 마치 독버섯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하게 이뤄지면서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 사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이버 사기범죄는 워낙 수법이 치밀해 눈뜨고 당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범죄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접근합니다. '휴대폰이 고장 나 연락이 안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명목의 문자를 보낸 후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가로채곤 합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만 해도 제주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피해는 34억3400만원(378건)이었습니다. 그해 2018년 55억2600만원(50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95억4600만원(565건)으로 피해액이 1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6억6200만원(270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추석 명절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라도 제주가 인구당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사기에 넘어가는 도민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사이버 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포괄적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민들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대란 재발 안된다"

제주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개시됐습니다. 도내 전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게 될 이 사업은 그간 입찰과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법정싸움에다 공무원 대기발령 등을 겪으며 상당기간 지연 우려를 낳았습니...

제주도는 22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부지 3만4737㎡에 사업비 1069억원을 들여 1일 340t 가량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자원순환체계를 갖출...

행정이 사전 환경기초시설 수요 대응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정의 대응미비를 떠나 이전 그 어느때보다 진솔한 '대화행정'이 절실합니다. 분개·색달동 두 지역 마을회와 현 상황 및 사업 전·후과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협의·공유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고, 솔직하게 '사실'을 주고받는 대화행정에 처리가 그동안 분개동쓰레기매립장에서 이뤄졌으나 연장 사용 등

의 문제로 작년 8월 차량반입 원천 차단에 이어 올해 8월도 반입 금지됐습니다. 도내 전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게 될 이 사업은 그간 입찰과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법정싸움에다 공무원 대기발령 등을 겪으며 상당기간 지연 우려를 낳았습니...

제주도는 22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부지 3만4737㎡에 사업비 1069억원을 들여 1일 340t 가량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자원순환체계를 갖출...

행정이 사전 환경기초시설 수요 대응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정의 대응미비를 떠나 이전 그 어느때보다 진솔한 '대화행정'이 절실합니다. 분개·색달동 두 지역 마을회와 현 상황 및 사업 전·후과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협의·공유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고, 솔직하게 '사실'을 주고받는 대화행정에 처리가 그동안 분개동쓰레기매립장에서 이뤄졌으나 연장 사용 등

뉴스-in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납득 어렵다"

향후 법정 싸움 예고

○...검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원 지사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

원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갔다"고 비판...

이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을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향후 법정 싸움을 예고...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어찌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열린 제2주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사업부지 내 저류지 조성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결 보류'를 결정...

앞서 2차례 심의에 이어 이번에도 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

코로나 시대 도서관 '열일'

○...제주 공공도서관들이 (사)공공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코로나 시대 도서관 열일 우수사례 공모'에서 잇따라 우수사례로 선정...

이와 함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소속 8개 도서관도 온라인 독서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귀포팝북 SNS를 운영해 우수사례에 포함...

열린마당

청렴한 공직자가 된다는 것



문현욱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공직자 가운데 청렴의 뜻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청렴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그리 중요하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공직자는 적을 것이다.

청렴이 무엇인가 하면 청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출발이 바로 청렴이라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온갖 유혹들을 뿌리치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간다. 그러므로 청렴이라 함은 모든 이에 대해 중요하지만,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덕목이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즉 공직자에게 청렴의 공직윤리를 논할 때, 빠

지하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다. 목민심서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가 마음대로 새겨야 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르는 것을 말하므로, 목민심서란 곧 백성들의 목자인 수령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실천해야 하는 글이란 뜻이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수령의 본분은 민중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국가의 정령을 따지심이 두루 알리고 민의의 소재를 상부 관청에 잘 전달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중을 보호해야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는 조선시대에서는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지만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의 윤리에 더욱 적용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청렴은 과거에도 강조됐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신규 공무원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대한 나침반으로, 기존 공무원은 자신의 행동을 비추보는 거울로 여겨 스스로에게 청렴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자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고동욱(포천교육청 장학사) 아버지
탐라고공 원호(향년 78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22일 00시 20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23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24일(목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용강동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창녕성씨 순덕(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23일
아들 장우석 며느리 고희자
문석 이상분
딸 장영란 사위 양성호
영순 조용남
영숙 오서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금매(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절충)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756-2833